

교회소식

◆ 광고

- 4월13일에 성례식이 있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및 유아세례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월14일(월)~20일(주일)까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www.no1shinil.org
- 신일문화센터 수강생 모집-오카리나 지도자반, 바이올린, 플룻, 첼로
문의: 윤현덕집사(010-7182-2978)

※ 교인동정

- 생일 축하합니다 : 채재규, 심충근, 김경춘, 엄순자, 신윤경, 김진승, 김수희
- 득녀 : 박영민(남경희)집사-3.17
이진석(윤혜진)집사-3.18

※ 교회 기도제목

- 영혼구원하고 제자삼는 교회 되게 하소서.
- 신일교회에 큰 부흥이 있는 한 해 되게 하소서.
- 교회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게 하소서.

◆ 모임/청지기 안내

다음주일새벽찬양	금주 수요찬양	오늘 식사봉사	목장성경공부	전도특강대	중보기도학교	새가족성경공부
제18여전도회	여15, 16목장	7여전도회	금요일 오후 7:30	수요일 오전10:00		주일2부예배후(각교실)

◆ 3월 행사

- 2일 : 신일비전현신예배
- 9일 : 각 기관 월례회
- 16일 : 제1남전도회 헌신예배
- 30일 : 정기당회

◆ 3월 안내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권유순, 정영주

◆ 3월 헌금위원

1부 : 박영숙A, 임희자
2부 : 박순국, 오승엽, 박유연, 소재역, 이진석, 곽복님, 이정자

새 가족

번호	성명	목장	인도자	주 소	전화	소속기관
	이은정		김금분	동구 대성동 삼익아파트 106-106	010-2420-1540	

주일낮예배

1부 : 오전 9시 인도 안 주 모 목사
2부 : 오전11시 설교

♣ 사도신경..... 다같이

♣ 찬 송 다같이

새21장(구21장)
새260장(구194장)
나의 영혼이 잠잠히

기 도 1부/박근용 장로
2부/안재경 장로

성경말씀 인도자

로마서 8:31~34 (신 P250)

찬 양 1부/호산나 찬양대
2부/할렐루야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기 도 설교자

찬 송 ... 새304장(구404장) · 다같이

헌 금 다같이

감사와 축복 인도자

♣ 찬 송..... 주기도문송.....다같이

♣ 축 도 담임목사

광 고 담임목사

✙ 다음주 기도 1부 / 남동균 장로
2부 / 원용국 장로

♣ 표는 일어나 주십시오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최사무엘 목 사
설교 정 기 훈 전도사

예배선언 인도자

다함께 찬양을...

기 도 이상균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마태복음 8:5~13(신 P12)

찬 양 글로리아 찬양대

말씀선포 설교자

믿음대로 될지니라

찬 양 ... 새368장(구486장) · 다같이

광고/축도 인도자

✙ 다음주 기도/ 윤성욱 집사

수요기도회

오후 7:00 인도 안 주 모 목사
설교

목 도 다같이

찬 송 ... 새395장(구450장) ... 다같이

기 도 김재희 집사

성경말씀 인도자

잠언 16:1~9 (구 P927)

말씀선포 설교자

여호와께 맡기라

목장찬양 여 15, 16 목장

축 도 설교자

기 도 회

✙ 다음주 찬양 / 여17, 18 목장

✙ 다음주 기도 / 김현숙 집사

Since. 1978

No 10. 2014. 3. 23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대전신일교회

금년목표 :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고후 5:17)

- 전파하는 교회(전도, 선교)
- 가르치는 교회(교육, 훈련)
- 치료하는 교회(예배, 상담)
- 봉사하는 교회(섬김, 나눔)

◆ 교회를 섬기는 분 ◆

담임목사 안주모
부 목 사 최사무엘 최영준
전 도 사 김금분 정기훈
장 로 김제곤 강일창 박권용 우성한 김명권 양문주
남동균 원용국 박근용 안재경
은퇴장로 이수영 정길원 정태수 윤선옥 우호선 김종남

찬양지휘 이육영 송명남 정기훈 윤현덕 조양순
반 주 조성일 김진영 강경숙 김애숙 박채리 조수정
기 악 윤현덕 김성욱 남정아 박채원

300-825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7번길 14(용전동)

TEL. (042) 622-7724(교회) 625-7724(목사관) 625-7723(당회실)

FAX. (042) 624-7721 www.no1shinil.org

초 대 합 니 다

1.신일교회는 주님의 진리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아픈 곳을 치료하는 교회, 섬김으로 봉사하는 교회로서 세상과 이웃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2.신일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입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가지고 구제와 장학사업 등 사회복지에 힘쓰며 가정사역, 치유사역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어 세상의 빛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신일교회는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 주역인 자녀들을 위해 교사정예화와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 교육현장을 혁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젊은이를 위한 찬양예배 활성화와 새가족양육, 부부성경공부, 제자훈련 등 각종 평신도 훈련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 만들기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안 주 모

예 배 시 간

예 배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 9시, 2부/오전 11시	본 당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3시	본 당
	수 요 기 도 회	동절기/저녁 7시, 하절기/저녁 7시30분	본 당
	새 벽 기 도 회	새벽 5시	사 랑 관
		새벽 6시	사 랑 관
제 자 교 육	심 야 기 도 회	수요기도회 후	본 당
	수 요 전 도	수요일 오전 10시	소 망 관
	중 보 기 도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사 랑 관
	목 장 성 경 공 부	목장별로	각 교 실
	새가족성경공부	2부예배 후	각 교 실
주 일 학 교	유 치 부	주일 오전 9시	사 랑 관
	초 등 부	주일 오전 9시	교육관 1층
	초등부오후예배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중 고 등 부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1층
	청 년 말 투 스	주일 오후 1시	교육관 2층

우리가 돕는 교회 및 기관

- 협력선교사** : 인도/윤지원, 터키/곽동신, C국/오성학, 국내이주민/김복경, C국/하요한, 필리핀/박원재, 프랑스/박신희, 아르헨티나/윤춘식, 파라과이/이태호, 러시아/배성운, 국내선교부/남후수, 미얀마/김민, 태국/정규호, 차양마이/인턴넷방송, 필리핀 추수선교회/오일환, 인도구조르트/전미숙
- 미자립교회** : 의령삼일교회/의령, 덕신영광교회/울주, 지탄사랑교회/영동, 놀인교회/청송, 원당교회/영동, 아하교회/대전, 십자성교회/해운대 군인교회, 뽕엘교회/창원 군인교회, 힐령교회/김해
- 학원선교** : 대전충청지역 S.F.C. 간사/이성운 김예정
- 기관선교** : 극동방송국/대전, 웅달병드롭민센터/서울, 북한어린이 사랑의 빵/한민족복지재단, 고신장학회
- 문서선교** : 기독교보사, 월간고신사, 코람데오닷컴사

향기로운예물

✦ 십일조헌금

강철원(이지영), 강해성(강성원), 강경래(전선녀), 김금분, 김영민(함현숙), 김재희, 김종경, 김진승(윤라미), 남정아, 노영민,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유연, 송정희, 신금순, 신동영(강경숙), 안재경(장은숙), 오세국(하문숙), 원용국(김복금), 윤호식(주정주), 이경자, 이문희, 이승민(엄서윤), 이신혜, 장재화(김덕연), 정기훈(최연옥), 정길원(정채순), 정옥근(이경미), 정홍재(김수희), 채재규, 최사무엘(서남지), 최영준(한은정), 함돈수(곽정자), 무명 1

✦ 감사헌금

강일창(고숙자), 강철원(이지영), 김건국(김성옥), 김경탁(김나경), 김금분, 김영권(영영주), 김영민(함현숙), 김재홍(한영자), 김재근(한영실), 김종남, 김진은(김남주), 김홍신, 노시래(구남영), 박관용(곽복남),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순국(조수정), 박영숙A, 박은정, 박해진, 설인성, 성형건(윤송희), 소재역(김미화), 안재경(장은숙), 안주모(조양순), 양문주(권유순), 오민옥, 오승엽(김영희), 오정석(정주희), 우성환(정혜민), 원용국(김복금), 윤성옥(김신혜), 윤호식(주정주), 이경자, 이승민(엄서윤), 이은정, 장재화(김덕연), 정기훈(최연옥), 정길원(정채순), 정홍재(김수희), 최사무엘(서남지), 최종예

✦ 선교헌금

강철원(이지영), 강춘자, 강현선(임희자), 강해성(강성원), 김금분, 김영민(함현숙), 김재희, 박상임, 박석문(정인선), 박영숙 A, 박유연, 박해진, 실버팀, 이승민(엄서윤), 정길원(정채순), 정인택(이정숙), 정홍재(김수희), 최사무엘(서남지)

✦ 일천번제헌금

강해성, 김건국(성옥/도희), 남동균(윤현덕), 남용민, 박유연, 안영원(영인/혜린), 안재경, 양문주(권유순), 이승민(엄서윤), 이영일(홍은미), 이재현(리희), 정옥근(이경미)

✦ 비전헌금

강철원(이지영), 박상임, 박진우(김혜정), 윤성옥(김신혜), 정홍재(김수희)

✦ 장학헌금

정옥근(이경미)

목장현황

2014. 3. 10~3. 16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초원		목 장	모인곳	출석	헌금	성경	다음장소
남1초원	1	김종남	교 회	3	20,000	40	교 회	여3초원	5	김채욱	교 회	3	7,000	70	교 회
	2	강일창	교 회	4	12,000	60	교 회		6	고숙자	교 회	2	5,000	30	교 회
남2초원	3	박근용	교 회	2	10,000	6	교 회	여4초원	7	곽복님	교 회	3	10,000	42	교 회
	4	김명권	교 회	1	5,000	10	교 회		8	성영옥	교 회	3	16,000	80	교 회
남3초원	5	남동균	교 회	1	5,000	50	교 회	여5초원	9	구남량	교 회	4	12,000	50	교 회
	6	안재경	교 회	2	20,000	40	교 회		10	정혜민	교 회	5	15,000	7	교 회
남4초원	7	오승엽	교 회	3	5,000	10	교 회	여6초원	11	함현숙	교 회	1	5,000	20	교 회
	8	박순국	교 회	2	5,000	12	교 회		12	김복금	교 회	3	10,000	100	교 회
남5초원	9	조성철	교 회	1	5,000		교 회	여7초원	13	정옥자	교 회	2	5,000	14	교 회
	10	이인호	교 회	2	5,000	56	교 회		14	이경미	교 회	3	15,000	20	교 회
여2초원(실버)	1	김명자	교 회	3	15,000	120	교 회	여8초원	15	신윤경	교 회	2	7,000	25	교 회
	2	김명숙	교 회	4	13,000	20	교 회		16	김춘복	교 회	2	10,000	3	교 회
여2초원(실버)	3	권월성	교 회	4	13,000	158	교 회	여9초원	17	한은정	교 회	3	4,000	40	교 회
	4	정채순	교 회	4	12,000	110	교 회		18	서남지	교 회	6	12,000	15	교 회

금주의 말씀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로마서 8:31~34

로마서 8장은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정사실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기본이나 강경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서지 않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1.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막지 못합니다

본문 31절에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본문은 두 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여기서 “이 일”이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가짜 절뚝하면 자신이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구원을 잘 지키지 않으면 받은 구원이라도 상실하게 된다고 거짓되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둘째 절문에서 가능성이 제거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누가”는 “어떤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막을 수 없습니다.

2.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본문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을 끼쳐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도로 거두시지는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우려하는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전연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본문 하반부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명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란 이미 받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말씀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을 주셨으니까, 그 보다 작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당연히 주십니다. 이로써 우리의 구원을 잃을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망을 느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도로 거두시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사탄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본문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여 사탄이, 곧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탄도 결코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계시록 12:10 말씀과 같이,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밟았 우리를 참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사탄은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실은 구약 성경 율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밟았 우리를 참소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은 순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괴롭히면, 그는 분명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 합니다. 그러면 과연 사탄에게 그 일이 가능할까? 아닙니다. 사탄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33절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시 말해서 다만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정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우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재판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4.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본문 34절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능성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를 내치지는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본문에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네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죽으셨습니다. 둘째,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넷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이로써 이제 네 가지 가능성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막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셋째, 사탄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넷째,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행하는 성도 여러 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안전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도인 형제님들을 만나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